



2023 FIFA 여자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케이시 유진 페어(왼쪽)와 문미라 등이 호주 시드니 외곽의 캠퍼타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훈련하고 있다. 캠퍼타운-연합뉴스

### 리버풀 캡틴 헨더슨 제라드 좇아 사우디행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명가' 리버풀 FC의 캡틴 조던 헨더슨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떠날 전망이다.

사우디 알에티파크로의 이적설이 나돌던 헨더슨은 27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리버풀 팬들에게 작별 인사했다.

헨더슨은 사우디 이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리버풀과 알에티파크가 헨더슨 이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적료는 1200만에서 1300만 파운드(약 213억8000만 원) 수준으로 계약기간 3년에 헨더슨이 받을 주급은 70만 파운드로 알려졌다.

중앙 미드필더인 헨더슨은 리버풀의 '레전드'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냈다. 2011년 선덜랜드를 떠나 리버풀에 입단한 뒤 12시즌을 뛰며 '명가' 재건의 주축을 역활했다.

초기에는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비판받았으나 시즌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나아졌고, 스티븐 제라드의 뒤를 이어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다. 지난해 10월 EPL 애스턴 빌라에서 경질된 제라드는 이달 초 알에티파크 신임 감독으로 부임했다.

헨더슨은 리버풀에서 2019~20시즌 프리미어리그(EPL), 2021~22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 2018~19시즌과 2021~22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등 여러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헨더슨은 공식전 492경기 33골 57도움의 기록을 남기고 리버풀을 떠난다.

한편 일부 팬들은 '무지개 축구화 끈'을 착용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헨더슨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사우디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EPL의 명가 리버풀FC의 캡틴으로 활약한 조던 헨더슨. EPA-연합뉴스

## 절망은 없다... 다시 달리는 한국 여자축구

30일 모로코와 2차전 앞두고 총력전 준비  
패스·미니게임으로 몸 풀면서 팀웍 다져



'다시 시작이다.' 콜린 벨(잉글랜드)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모로코를 상대로 나선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30일 오후 1시30분 호주 애들레이드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와 국제축구연맹(FIFA)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을 갖는다. 조 최약체로 꼽히는 모로코전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모로코전 대

승에 이어 우승후보인 독일과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둬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겠다는 게 한국의 희망사항이다.

한국 여자축구는 FIFA 랭킹 17위에 올라 있고, 모로코는 한참 아래인 72위에 랭크돼 있다. 객관적인 실력으로도 한국이 크게 앞서 있다. 대표팀은 29일 모로코전 이 열리는 애들레이드로 이동한다.

16강행을 위해 콜롬비아와 조별 리그 1차전이 가장 중요했지만 0-2로 분패하고 말았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예기치 못한 실수와 불운으로 무너졌다.

지난달 파주 국가대표센터(NFC)에서 거행된 최종 소집 훈련에서도 콜롬비아와 1차전에 집중했던 이유다.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고강도 훈련에 몰입했다.

우승후보로 꼽히는 독일에 0-6으로 대패한 모로코도, 콜롬비아에 패한 한국에게도 첫 승이 절실하다. 2차전에서 패배는 곧 토너먼트 탈락을 뜻하는 단두대 매치다.

모로코와 2차전을 앞두고 선수들과 벨 감독은 마음을 다 잡았다. 벨 감독은 "이제 모로코전을 해야 한다. 콜롬비아전에서 패배도 축구의 일부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 감독의 지시대로 선수들은 다시 일어났다. 26일 호주 시드니의 외곽 캠퍼타운 스포츠스타디움 한국대표팀의 훈련장에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콜롬비아전을 뒀던 선수들은 맷 로스 수석코치와 함께 패스게임, 미니게임, 족구로 몸을 풀며 회복훈련을 했고, 박은선, 강채림, 케이시 페어, 문미라 등 교체 선수들과 벤치 선수들은 스프린트 훈련 등을 하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선수들은 "겨우 1경기를 치렀을 뿐이고 아직 2경기가 남았다"는 점에 집중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비한 수비 전술 훈련에 집중한 대표팀은 모로코를 상대로 공격 다듬기에 매진했다. 뒷공간

을 노린 침투패스를 받은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크로스나 킥백을 전달해 문전 공격수가 마무리하는 골 결정력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모로코전 다득점 승리를 노리겠다는 벨 감독의 의도가 읽힌다. 최전방 공격수뿐 아니라 조소현(토트넘), 이금민(브라이턴) 등 미드필더도 차례로 돌아가면서 페널티지역에서 슈팅하며 골을 노리는 훈련에 집중했다.

한국 여자축구는 2023년 호주·뉴질랜드 대회 첫 경기에서도 패하며 월드컵 무대 5연패를 기록 중이다. 총 11경기에서 1승1무9패, 4번의 월드컵에서 단 1승뿐이다. 3대회 연속 모두 1차전에서 패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김주형 발목 부상에 "완치가 우선"

PGA 투어 타이틀 방어 포기... PO 첫 대회 집중기로



23일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플에서 발목을 다쳤지만 공동 2위에 오르는 투혼을 발휘했던 김주형(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첫 타

이를 방어까지 포기하고 플레이오프(PO) 준비에 전념하기로 했다.

김주형은 다음달 4일(한국시간) 열리는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27일 밝혔다.



당시 PGA투어 임시 회원이던 김주형은 이 대회 우승으로 PGA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 김주형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출전 신청을 철회했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이기도 한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대회가 끝난 뒤 바로 시작하는 플레이오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아픈 발목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윈덤 챔피언십은 PGA투어 2022-23시즌 정규투어 마지막 대회이며 PGA투어는 8월11일부터 플레이오프 첫 대회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을 연다.

플레이오프는 8월18일 BMW 챔피언십,

그리고 8월25일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으로 이어진다.

김주형은 디오플 2라운드를 앞두고 숙소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2라운드부터 기관까지 생각했던 그는 얼음 찜질 등으로 버티면서 4라운드까지 마쳐 공동 2위라는 디오플 한국인 최고 성적을 거뒀다.

김주형은 대회조직위원회에 "첫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지 못해 아쉽다"면서 "발목 부상을 완전하게 치료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